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교육부 개학연기 결정

코로나19 대응 조직 확대·개편 중국 유학생 공동대응단 구성 교직원출근, 상황 예의주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이 진행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키로 결정했다.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뤄진다. 개학은 연기되지만 교직원들은 출근한다.

교육부는 앞서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안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실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대응 조직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서울시와 중국 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엄정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의 지역 상황 판단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감안해 개학 연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개학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21일 10시 기준 전체 2만528개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중 71교(21일 10시 기준)가 개학 연기나 휴업 중이었고, 지역별로 개학 연기나 휴업 학교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가 6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 5곳(유치원 3곳, 초등학교 2곳), 경기도 특수학교 1곳 등이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올라온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연기를 요청합니다’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했고, 경북도교육청도 교육부에 개학 연기를 위한 학사일정 조정 협의를 신청해 협의해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조동성 인천대 총장 상남경영학자상 수상



국립인천대학교는 조동성 총장(사진)이 지난 21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동계 정기총회에서 상남경영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남경영학자상은 한국경영학회가 한국의 경영학 발전과 경영학자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1995년부터 매년 1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조동성 총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8년부터 36년간 서울대 경영대에서 전략 및 국제경영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지역원(현 국제대학원) 원장과 경영대학장을 역임했다. 영어 16권, 중국어 5권을 포함한 65권의 저서와 143편의 학술 논문을 출판했다.

2016년부터 국립인천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집중연구대학’, ‘매트릭스 칼리지’를 도입하는 대학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대입 막차’ 162개 대학서 9830명 추가 선발

2020학년도 대입

전년비 3개교 줄고 2396명 늘어 동국대·한국외대 등 추가모집 성적 따라 모집단위 염두해 지원

전국 162개 대학이 2020학년도 대입에서 9830명을 추가 모집한다. 올해 추가모집 규모는 전년도 165개 대학 7437명에서 대학 수는 3개교 감소했지만, 인원은 2393명 증가했다.

추가모집 대학 중 전년도에 추가모집이 없었던 동국대 서울캠퍼스 7명,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33명, 홍익대 서울캠퍼스 22명을 각각 추가 모집해 올해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대·치대·한의예과 추가모집도 있다.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 동국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인하대, 제주대 의예과에서 수능 일반전형으로 각 1명씩을 추가 모집한다. 원광대의 예과는 2명을 모집한다. 치의예과는 부산대, 원광대가 각 1명, 조선대 2명을 모집하고, 한의예과 중 상지대가 1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2020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현황)

대학	2020모집인원	2019모집인원	증감	원서접수 마감시간
가천대	14	4	10	2.26 11:00(예체능2.25)
가톨릭대	9	12	-3	2.25 17:00
광운대	16	24	-8	2.25 19:00
덕성여대	8	6	2	2.26 10:00
동덕여대	12	17	-5	2.25 14:00
삼육대	8	1	7	2.26 17:00
상명대(서울)	5	7	-2	2.25 12:00
서경대	9	10	-1	2.26 14:00
서울여대	12	22	-10	2.26 12:00
세종대	20	43	-23	2.26 12:00
평택대	27	10	17	2.26 15:00
한경대	48	26	22	2차 2.26 16:00
한성대	12	10	2	2.25 18:00
한세대	18	5	13	2.26 13:00
한신대	10	14	-4	2.26 13:00
협성대	39	32	7	2.26 15:00
홍익대(서울)	22	0	22	2.26 12:00

/자료=진학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번 추가모집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정시모집에서 합격했다라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시모집 합격자의 경우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추가모집의 경우 한 대학 내에서 여러 전형

이나 모집단위에 중복 지원할 수는 없지만, 수시모집 6회 이상 제한, 정시모집 1회 3회 이상 제한 등 대학간 복수 지원은 제한이 없다.

여러 대학 지원이 가능해 추가모집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또 다수 중복 합격자 이탈로 미등록충원도 많이 발생한다.

전형방식은 일반전형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수능 100% 선발이 다수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 100% 선발이므로 수능 미응시자나 성적이 저조한 경우 학생부 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7일 21시까지로 각 대학별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이 진행된다. 합격자는 접수기간 이전에 발표되며 등록기간은 28일까지다. 대학별 원서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강남대, 신한대, 한경대 등 추가모집을 1차와 2차로 구분하는 대학도 있는데, 1차 추가모집 이후 결원 발생 시 2차 추가모집을 갖는 것으로 1차에서 마감될 수 있기에 2차를 염두하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1차에 지원해서 불합격된 경우도 2차 모집이 진행될 시 지원 가능하므로 다시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 연구원은 “추가모집은 수시, 정시 전형을 통해 합격한 수험생은 지원할 수 없고, 불합격자 중 재수를 결정할 경우도 있기에 합격선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라면 대학 내 모집인원이 많은 모집단위를 우선 고려할 것이기에, 반대의 경우라면 모집인원이 적은 모집단위 중 선호도가 있는 모집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충원합격 가능성까지 염두한 지원 전략 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삼육보건대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세미나

삼육보건대학교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교내 소강당에서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혁신지원사업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대학 관계자와 재학생,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국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 등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핵심 역량 교육운영체계 및 성과분석 활용방안’, ‘역량기반 교육과정 사례’ 특강이 진행됐고, ‘글로벌혁신’, ‘교육혁신’ 등 각 분야별 성과 발표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혁신역 내 창업지원 공간 개관

중앙대는 24일 혁신역 내 창업공간인 ‘중앙대 혁신역 청년창업 문화공간’과 청년창업가들의 교류 공간인 ‘창업발전소 Express(사진)’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혁신역 청년창업 문화공간은 메트로9호선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동작구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중앙대가 운영하는 지하철 내 최초 창업문화공간이다. 제품 상담, 시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창업발전소 Express는 중앙대 서울캠퍼스 옆 지상 3층 연면적 145㎡ 규모로 청년 창업가들의 교류 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및 교육공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로 구성된다. 두 공간은 중앙대 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다. /한용수 기자

‘코로나19’에 취업준생 64% “취업일정 차질” 전국대 3월16일 개강... 1주 추가 연기

잡코리아는 신입직 취업준비생 17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3.5%는 “이번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6.5%였다.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으로는 ▲‘기업들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축소할까 우려된다’

가 응답률 5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업들의 채용일정 연기로 향후 기업끼리 일정이 겹칠까 우려된다’는 응답도 47.9%로 높았다. 이어 ▲‘좁은 공간에서 치러지는 자격시험 등 응시가 우려된다(32.6%)’ ▲‘취업 박람회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줄어들었다(30.8%)’ ▲‘대학 내 기업들의 채용설명회 취소 등으로 기업 정보를 구하기 힘들다(26.2%)’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전국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역 사회 감염 단계로 진입하는 등 악화됨에 따라 교내 협의를 거쳐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1주일 추가로 연기해 3월 16일 개강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국대는 앞서 개강을 1주일 연기한 3월 2일 개강하기로 했었다.

개강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수강신청 정정 기간도 1주일 추가 연기될 예정이다. 또 당초 졸업생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예정했던 단과대

학별 졸업 학위복 대여를 불가피하게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학교와 제52대 총학생회장은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졸업생 및 학교 구성원들 간의 교차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학위복 대여를 취소하게 됐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위해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계획 취소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